

주요활동 · 공정언론지향·언론문화창달  
· 언론관계 출판·연구발표  
· 언론상 시상  
· 언론인 복지 후생사업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11

2012년 11월 1일

제 320호

## NLL은 ‘대한민국 생존선’이다

지난 9월, 북한 어선들은 수차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감행했다. 야심(夜深)한 시각에 우리의 경계태세를 시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해안포의 포문을 열어 위협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은 지금도 끊임없이 NLL을 넘보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 1. 합법적으로 결정한 선

1953년 7월 클라크(Mark W. Clark)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던 당시에는 물론 그 후 1972년 까지도 이의(異議)조차 달지 않았다. 이의는커녕 아마도 감지덕지(感之德之)했을 것이다. 휴전 당시 북한 해군은 거의 전멸상태에 있었고 압록강 하류 신도군과 비단섬 같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전 한반도 연해(沿海) 도서(島嶼)들이 UN군 관할 하에 있었는데 이 NLL을 설정함으로써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개 섬을 제외한 모든 섬을 북한에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NLL은 정전회담 당시 남과 북의 합의를 ‘문서’로 하지 않았지만 단지 육지의 군사분계선(MDL)이 연장된 선이자, 남북이 함께 ‘남과 북의 서해 해상 영토를 구분하는 현실적 경계선임을 묵시적으로 합의한 선’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1962년부터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내세우고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잠수함·유도탄정을 도입하고 고속정·어뢰정을 대량으로 건조하면서 해안포까지 설치하는 등 해군력을 크게 증강 하면서 달라진다. 1973년 새삼 이들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면서 서해 사태, 일명 서해 5도 봉쇄작전을 시도하는 등 NLL 침범을 시작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1990년대 초에 일단 끝이 난다. 1991년 12월13일 남북 기본합의서 제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서해 해상 경계선을 위요(圍繞)한 갈등은 다시 매듭을 지은 것이다.

이 합의는 1992년 9월17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고 합의

함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 된다. 그리고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 국회와 북한 인민위원회에서 인준(認准)까지 받는다. 사실상 유일하게 완전하고 합법적인 남북간 합의서인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흔히 NLL의 국제법적 합법성 여부를 문제 삼지만 합법성 여부는 처음부터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NLL

설정 후 20여년 가까이 북한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저들의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 지도에서도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으며, 1984년 북한이 한국에 수해물자를 넘길

### 특별기고



김희상

·예비역 육군중장  
·정치학 박사  
·한국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 2. 인천앞바다 안전보장 안돼

하기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는가? NLL이 황해도의 서해 남부 연안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 지역의 어로(漁撈)와 해운(海運)

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10월 20일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통일되는 날까지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NLL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북한의 선언이자 다짐에 다를 아니다.

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법 이전(以前)에 자유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남북 간 어떤 현안 과제보다도 특별히 엄격한 기준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NLL문제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더, 최근 논란이 되었던 ‘10·4 선언’의 ‘공동어로와 해주 직항 문제가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 안(案)’은 우리로서는 절대 허용 할 수 없는 안이다. 보도에 의하면 10·4선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는데 북측은 NLL 남측에 공동수역을 두자고 해서 회담이 깨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NLL 남과 북에 같은 크기의 균형된 공동어로구역은 무방하다는 뜻’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북측의 주장과 50보 100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명확한 분계선을 긋고 안전거리까지 고려하며 작업을 하는 지금도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 이곳 해양이다. 만약 같은 곳에서 남과 북이 함께 어로 작업을 하다보면 배가 부딪치고 그물이 얽히는 등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다를 것이다. 저들이 뒤떨어지는 어로 기술과 장비를 특유의 호전성(好戰性)으로 보완하려 들면 그럴 가능성은 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양측의 경비함들이 달려들면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아니라 ‘만성적인 상시분쟁지역’이 될 것이고 NLL은 점차 그 존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어선은 북한군 소속이 아닌가? 순수한 민간어선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선박들이 해주로 ‘직항’한다면 서해 NLL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 그 결과는 아예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오죽하면 10월12일 세종연구소 세미나에서 미국의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까지도 “서해 북방한계선에 평화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을까?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해도 도대체 왜 이런 합의를 다 받아 주었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 53년 휴전 회담때 묵시적 합의 무너지면 수도권 枯死 불보듯

때도 NLL에서 상봉했던 사실을 비롯 해서 북한도 이 선을 합법적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확인 해 준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다가, 가장 합법적인 남북기본합의서로 합의까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측에 햇볕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NLL흔들기가 다시 강화된다. 특히 1999년 9월 북한은 휴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황해도 등산곶과 굴업도 사이의 대략적 중간을 연하는 불법적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는 이후 수차에 걸친 해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무력도발을 이 주변에서 전개한다. 남측을 계속 흔들고 괴롭혀서 ‘햇볕정책의 성공’을 갈구하는 남측의 양보를 강요하는 계획적 도발인 셈이다. 그리고 2007년 이른바 ‘10·4 선언’에서 마침내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는 큰 성과를 얻어낸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초, 북한 조평통은 서해상 NLL 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선언을 했고, 지난 9월 29일 북한 국방위에서는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

등 경제 발전에도 지장이 적지 않을 것이고, ‘북한 옆구리를 노리는 비수(匕首)’라는 표현대로 안보측면에서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NLL이 없어지거나 북한의 주장대로 재조정하면 그 때는 우리는 훨씬 더, 아예 치명적인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해군은 덕적도 앞바다까지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고 인천 앞바다는 더 이상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안전한 우리 영해가 아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선적 해상수송로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 내동댕이쳐진 모양새가 되고 인천 공항도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되면 서해안 시대의 꿈이 불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심장지대인 수도권 전체가 점차 활력을 잃고 고사(枯死)해 갈 가능성이 높다. NLL 문제가 사실상 한국의 국가적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북한도 그런 차원에서 더욱 더 집요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 NLL을 위요한 갈등은 단순한 작은 어로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국제법

# 북한병사 ‘노크 귀순’ 교훈과 과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세간에 많은 화제와 논란을 낳았던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지난 10월15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공식 사과와 문책 계획 발표 등으로 외형상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합동참모본부와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등의 장성과 영관장교 14명에 대해 대대적인 문책을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설치를 앞당기는 등 시스템 개선책도 발표했다. 초소와 초소 사이에 설치된 소형 초소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점 감시체계로 전환기로 했다. 철책 상단의 윤행(동근) 철조망을 보강하고 소초 막사와 소초 지휘소 등에 경계망과 철조망,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북한군 귀순자가 3중 철책을 불과 10여분만에 넘어온 것으로 확인되자 우리 군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최신형 카메라 등으로 구성돼 있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당초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까지 3개 사단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휴전선 155마일(249km)에 모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2014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하지만 한때 합참의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끼칠 뻔했던 이번 사건은 우리 군에 큰 교훈과 함께 과제를 남겼다.

우선 군에서 경계태세 보강 대책으로 내세운 과학화 경계 시스템 조기구축은 초반부터 뼈아픈 실정이다.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사업이 시험평가에 참여한 2개 업체 시스템이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10월24일 시험평가에 참여한 삼성에스원과 SK C&C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능 충족성 등 4개 분야 61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2개 업체 모두 ‘전투용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에스원은 61개 항목 중 1개 항목이 ‘기준 미달’이었고, SK C&C는 61개 항목 중 41개 항목은 ‘기준 충족’됐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거부했고 3개 항목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시험평가는 동부전선 12사단 GOP 철책 1km 구간 2곳에서 작년 12월부터 올 9월

특별기고



유용원  
·조선일보 정치부 군사전문기자

## 경계시스템 과학화 난관 봉착 탈북 완벽봉쇄 사실상 어려워

까지 실시됐다. 이에 따라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사업은 사업공고와 시험평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로 철책선 경계임무를 맡았던 병사들에겐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위의 지휘관과 군 간부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당시 초병들은 졸지 않았고 근무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신세대 장병들의 기강해이를 우려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해당부대 대대장과 1군사령부, 합참의 장성, 장교들은 보고 누락에 안이한 판단 등으로 사건을 본질에 비해 크게 키우고 말았다.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참의장에게 6차례나 ‘(귀순자) CCTV로 발견’ 보고를 해 합참의장이 결과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답변을 하게 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은 “2010년3월 천안함 사건 때 군 발표가 오락가락해 불신을 키웠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확인

이 끝날 때까지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답변했던 구조(CCTV 발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전본부장은 국방부 대변인까지 지낸 사람이어서 일각에선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내에선 지난 10월8일 합참이 첫 단독 국감을 앞두고 10월2일 발생한 이 사건이 불거질 경우 국감에서 시달릴 것을 우려해 쉬쉬하다가 일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세번째로 군 작전개념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가 어릴 때 봤던 ‘배달의 기수’와 같은 프로그램에선 ‘물샬 틈 없는 경계태세’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했었다. 군의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강조한 말로 사실은 과장된, 비현실적인 용어다.

몇년에 한번씩 귀순자 또는 월북자에 의해 철책선이 뚫릴 때마다 호된 질타를 받아온 군내에선 “이젠 ‘물샬 틈 없는 경계태세’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항상 뚫릴 수 있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전방 철책선 지역에 배치된 병력규모와 배치 형태 등을 감안하면 북한군이나 민간인 한두명이 몰래 넘어오는 것은 발견하기 힘들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토로다.

과거 최전방 철책선 경계근무는 1개 초소(2명 근무 기준)가 300m 가량을

담당했지만 몇년 전부터 군 작전개념의 변화와 경계병력 감축으로 초소당 담당 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초소간 간격은 700~800m에 달한다고 한다. 한 현역 대령은 “초소간 간격이 1km에 달하면 한두명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겠느냐”고 했다. 특히 중동부 및 동부전선은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형이어서 더욱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최전방 경계작전의 원래 취지는 일정 규모이상의 비정규군(게릴라) 침투를 막거나 전면전 도발시 이를 탐지하는 것이지 한두명 귀순자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귀순자나 탈북자들을 완벽하게 막으려면 몇십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도 부족할 것이라는 게 장성들의 말이다. 한 현역 소장은 “야전 지휘관 시절 최전방 철책선 지역에서 야간에 몇십m 간격으로 병력을 깔아놓고 특전사 요원들로 하여금 침투토록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뚫렸었다”고 전했다.

특히 휴전선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아 과학화 장비 감시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람이 직접 감시를 해야 하는데 경계태세를 강화하려면 지금보다 병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후방지역에서 정규전과 대규모 북 특수부대(20만명)의 게릴라전에 대비해야 하는 병력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한다. 군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정에 사단들을 경계근무에서 제외시키고 경계업무만 전담하는 여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철책선 경계작전 현실은 근무기강이 풀어져 있지 않더라도 귀순자 한두명에 의해서 항상 뚫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우리 안보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침투나 도발을 발견하고 막아내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제공]

## ‘大選과 국가발전’ 긴급 대토론회

대한언론인회 11월 19일 프레스센터

대한언론인회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의 선택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긴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고려대 함성득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남시욱(세종대 석좌교수·전 문화일보사장) 박명진(서울대교수),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최희조(본보 편집위원·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씨가 참여하고 사회는 문명호 본회 주필(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맡는다.

▶ 회우 여러분께서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후엔 회식이 있습니다.

## 이혜복 본회고문 일대기 출간 11월 22일 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는 이름:이혜복’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소로(素露) 이혜복(李蕙馥)선생은 1946년 언론계에 투신한 이래 90 춘추를 맞으신 현재까지 언론현장 또는 언론기관 단체에서 일생을 보내셨다. 6·25전쟁때는 국군 1사단의 평양 탈환기사를 특종보도 하는 등 종군기자로서 크게 활약을 했고 민국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사회부장

을 역임하시면서 ‘영원한 사회부장’이란 애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1991년 대한언론인 회장에 취임한 뒤 다섯차례 10년간 중임하시면서 기금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언론인회 중흥을 이뤘다. 대한언론인회가 펴낸 이 책에는 소로선생의 자서(自叙)를 비롯해 회우 20여분이 소로선생과의 인연과 취재 뒷 얘기 등을 집필했다. 회원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 회비 2만원

## ‘언론·언론인의 길...’ 제2집 출간 12월 4일 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는 작년에 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출판비를 지원 받아 ‘언론·언론인의 길-그때 그 시절 못다 한 이야기’ 제2집을 출간하고 오는 12월 4일 오후 6시 프레스클럽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언론·언론인의 길...’ 제2집은 간행위원회가

추천한 올해 만 70세 이상의 본회 회우 42명이 집필했다.

※회우들에 대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은 별도로 보내지 않고 이 기사로 대신하오니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兵役단축 ‘善心대상’ 대선 안된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있는데 혹시라도 군복무기간 단축을 표를 얻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는 대단히 유감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여야 할 것 없이 신중히 판단하고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일정 규모의 병력 유지는 우리 안보 형편에서 불가피하며 현재의 복무기간은 여러 번의 단축을 거쳐 조정된 최소한의 하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크지만 군의 적정 규모 유지가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나마도 부족한 병역자원 중에서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를 하는 인원이 적지 않다. 이제는 각 부처에서 병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기득권이 돼버렸다. 각 부처는 예산을 확보하여 인력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 병역자원이 남아돌 때는 이러한 병역 특례나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도 한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군의 인가 인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 지금은 아니다.

일개 병사를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훈련 및 숙달 기간이 필요한가는 병력을 실제 운용하는 부대에서 가장 잘 안다. 부족되는 병사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군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부사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병사 운영비의 몇 배를 넘는다. 얼마 전 복무 연장을 희망하는 병장에게 제대 후 학자금 보조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모집하는 제도를 시행해보았지만 소요의 희망자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필요한 적정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국방 현실에서 병을 부사관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이 되기

특별기고



김국현

·예비역 육군소장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 장비를 사용해서 경계를 하는 것과 한국과 같이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 장비로 경계를 한다는 것은 차이가 많다.

외국에서는 병 근무연한이 12개월이 대세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징병제를 하지 않고 모병제를 하는 나라도 많다. 그런가하면 이스라엘처럼 여성이 군에 가는 나라도 있다.

국 왕실은 포클랜드 전쟁에 앤드루 왕자가 출전하였고 지금도 해리 왕손이 아프간 전쟁에 출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군복무를 기피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연사는 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의 해군장교 복무를 ‘고문’이었다고 술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오히려 군복무를 인생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자 기회로 보고 나아가 이를 자기 발전과 성취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기풍이 많아졌다. ‘지옥훈련’으로 소문난 해병대 극기훈련에 기업의 멤버십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보고 적극 참여한다.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게 된 젊은이들도 군복무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군복무를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꼭 지녀야 할 스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군 복무를 제대로 필하지 않은 젊은이는 항상 또래의 대화를 피해 다닌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비겁하고 소극적 행태를 싫어하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표를 얻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 나오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재정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데에 대해 걱정이 많다. 최근 역대 정부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장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분들과 같은 우국충정에서다. [\[W\]](#)

## 대선후보 현실외면 공약 우려 기술력-부사관 대체 실효 없어

어렵다.

군의 장비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병사의 소질은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달 기간이 필요하다. 숙련된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교육 훈련기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숙련된 병사는 부대 전투력의 골간을 형성한다. 이들이 쓸만하면 제대하게 되어 있어 부대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병력을 기술력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번 22사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병사의 경계근무를 장비로 대체한다는 방법이 능사는 아니다. 시나이 사막에서 정전관리를 하는 유엔군

이처럼 병역제도는 나라마다의 안보환경과 역사, 전통에 따라 다르다. 어느 한 제도를 참조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국은 세계에 무력적화통일을 공언하는 북한에 맞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나라이다. 북한은 한국의 절반 밖에 안되는 인구로 110만의 대군을 유지한다. 북한은 선군정치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대를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병역문제에 뒤흔들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영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더욱이 공산권이 원래 그렇듯, 북한도 ‘특정 목표를 잘게 나누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쟁겨가는’ 이른바 피스밀(piecemeal) 전술에 능하다. 노무현 정부 초기 북한은 휴전선상 남북의 심리전 방송과 전광판(電光板)을 폐쇄하자고 매달린 일이 있었다. 그것만 해 주면 더 이상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하더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거부되었다. 따지고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우선 당시의 북한은 진작 합의 했던 전선 시각매개물 철거조차 불성실하게 해서 그 때까지도 비무장지대 북한측에는 곳곳에 대남 선전물들이 널려 있었으니 설사 합의한다고 해도 그 신뢰성 자체가 의문스러웠다. 특히 북한 측의 방송과 전광판은 유치한 허위 선전으로 우리 장병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고 전력(電力)사정까지 좋지 않아 거의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었던 반면, 우리 측의 방송과 전광판은 최신 세계 뉴스를 포함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북한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성능이 뛰어난 스피커는 북한지역 수십

km 후방에까지 외부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었다. 오죽하면 전선 북한 병사들은 일기예보까지도 우리 방송과 전광판으로 알았다고 한다. 남북 ‘쌍방’의 방송을 폐기 한다는 것은 말장난일뿐 사실상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던 대북 심리전 수단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데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북한 병사들에게 들려주던 외부 세계의 소식을 중단하는 것은 일종의 비인도주의적’ 조치라며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는 ‘우리가 이유 없이 이 제안을 받아 주면,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가 또 다른 요구를 해 올 것이다. 아마도 서해 NLL 문제를 또 제기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일이 어디 한 두 번이던가? 사실 시각매개물도 그렇지만 전선의 심리전 방송은 북한의 전력상황이 그런대로 여유가 있을 때 북한이 먼저 시작한 것이었고, 최근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전단(傳單) 살포도 과거에는 북한 측이 훨씬 더 대규모로 극렬하게 활용하던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그런 싸움에서 북한이 불리해지니까 남측의 ‘햇볕 정부’를 압박해서 하나하나 폐쇄해 나온 것이다. 그리고는 북한에 유리하

거나 나름의 승산이 있는 방법으로 싸움 방식을 바꾸어 온 것이다.

그러니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제안에 합의해 줄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다음해 이런 저런 이유로 국가안보회의의 구성원이 바뀌고 난 후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고 대북방송과 전광판은 결국 폐쇄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이번에는 집요하게 NLL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것은 혹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원만하게 유지 된다고 해도 그것도 잠시, 멀지 않아 북한은 또 다시 ‘특별지대를 남측으로 확대하자’든가 하는 등등의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오고 이런저런 도발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는 증거인 셈이다. 이처럼 크게 보면 NLL 도발도 결국 적화 통일을 내다보는 북한의 장기 전략적 침략의 일환인 것이다.

### 3. 단호한 응징 의지 보일 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지상(地上)의 155마일 휴전선처럼 NLL은 ‘바다의 휴전선’이다. 철통같이 지켜야 할 대상이지 굳이 풀어야 할 이유도 없고 당초부터 쉽게 풀어질 문제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NLL을 명확히 인정한다면, 그런 전제하에 남북간의 해상 충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앞으로 논의 하자’고 했던 것도 현재처럼 대립 갈등이 지속 되는 한 풀릴 가능성이 없으니 장차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해서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정착이 가능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가 자유통일 되기 전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결국 당장은 NLL에 대한 도전은 각별히 경계하고 철저히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평소 단호한 응징의지와 태세를 갖추어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임을 인식시키고, 유사시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NLL이 더 이상 도발해도 좋을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발은 계속 될 것이고, 마침내는 자유 대한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W\]](#)

# 중국 시진핑시대 불안-기대 교차

중국공산당 18차 전당대회가 드디어 11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대개 열흘 정도 걸리는 대회 마지막 날에 중앙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 중앙위원들이 25명 내외의 정치국원들을 선출한다. 이들 정치국원이 공산당 권력구조의 정상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권력의 핵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다. 2022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할 5세대의 핵심 지도자들이 바로 이들 18기 상무위원들이다. 중국은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가 이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간 18차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참 말도 많았다. 제일 먼저 터진 게 3월 초에 있었던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이었다. 보의 부인 구카라이(谷開來)가 영국인 닐 헤이워드를 독살하고 이와 연계된 중칭(重慶) 경찰국장이 미국 영사관에 망명하는 등 3류 미스터리 소설처럼 시작된 사건은 보가 중칭(重慶) 당 서기로서 18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가장 유력한 태자당 출신의 실력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권력의 심장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결국 보의 정치국원 지위와 당원자격이 박탈되고 구카라이에게 사형 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했지만 당대회 날짜의 발표가 계속 연기되었고 급기야는 9월 초에 시진핑이 갑자기 잠적하는 사태로 까지 확대되었다. 시진핑이 2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 일정도 11월 8일로 발표되었지만 18기 지도층이 이끌 중국의 장래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장래에 대한 불안의 첫째 요인은 권력교체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에는 마오쩌둥이나 덩

샤오핑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없다. 덩샤오핑은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를 3세대와 4세대를 이끌 총서기로 지명했고 그의 결정에 따라서 후진타오가 장쩌민의 뒤를 이어 10년 전 당 총서기에 취임하여 건국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4세대 지도층을

## 특별기고



정종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전 주중대사

##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대양진출-영토분쟁 향해 관심

이를 5세대 지도자들은 지명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선출된다. 전임, 현임, 후임 총서기 3사람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원로들도 많이 있고 계파간의 안배도 중요하다. 정치국 상위에 진입하기 위해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정치가 시끄러워질 수 밖에 없다. 보시라이 사건도 이런 새로운 지도자 선출 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볼 수도 있다.

중국이 경제 사회 정치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 중의 하나다.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수출보다 내수가 강조되고 소비가 장려되고 있다. Made in China에서 Made for China의 시대를 열려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

니다.

성장 대열에서 낙후한 수 많은 농민 노동자들이 반정부 데모에 나서고 있다. 2010년에만 해도 18만 건에 달했다. 또한 10억의 컴퓨터 사용자, 5억의 이동전화 사용자, 수 많은 이익단체들은 정부, 사회 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중국은 정치 개혁을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상황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公安(公安)의 예산이 국방비 보다 많을 정도로 치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물리적 대응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도전을 풀어가야 할 새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전후 세대이며 개혁 개방의 주역이자 실용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다. 해방 이후 태어나서 문화혁명의 시련을 겪었고 개방 개혁의 혼돈속에서도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산당의 권력독점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다.

중국의 근대화라는 민족주의적 목적

을 위해서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국부상을 이용하고 견제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 지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영토가 잠식되었다는 피해의식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정부가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 국가와 일본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는 않다.

중국은 80년대 초부터 대양의 꿈을 추구해 왔다. 해군 제독 류화칭(劉華清)의 작품이었다. 그 꿈이 얼마 전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의 취항으로 실현되었다. 미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수 십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일본과 한국에게는 상당한 군사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결은 한계가 있다. 중국 전문가들의 말처럼 “싸우지만 판을 깨지는 않을 것”(鬪而不破)이다. 그러나 그런 싸움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전략적 손익계산은 다르다. 고래가 싸우든 사랑을 하든 풀밭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 풀밭이 한국의 안마당일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새 지도자들이 류화칭의 꿈을 꾸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水則載舟 水則覆舟)는 경구를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 대비(hedging)와 함께 우리의 독자적 행동 공간을 확장하는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 [W]

# 대선후보 대북정책 걱정스럽다

대선의 계절이 돌아오면 으레 그렇듯이 올해에도 각당 후보들이 너나 없이 북한으로 몰려가고 있다.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경색국면을 화해국면으로 전환해 남북관계개선은 물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은 기본이다. 남북정상회담추진은 단골메뉴이고 중단된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이산가족상봉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심지어 어떤 후보는 경제협력을 최상의 가치로 내세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마치 현재의 남북관계경색이 북한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명박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듯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서해바다에 고혼이 된 46용사들의 죽음을 불러 온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한 조치가 잘

못된 것인양, 새벽에 산책나갔다가 북한초병이 쏜 총에 억울하게 희생된 박왕자씨 사건도 박씨의 잘못된인양 흘러가고 있다.

어떤 대선후보는 여론의 따거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평택에 전시된 인양 천안함앞에서 처음으로 묵념을 올린 했으나 북한 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들 대선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을 들으면 남북관계가 금세 좋아지고 새 정부하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전혀 없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확고한 안보에 기반하지 않는 외다리 대북정책은 미 연방하원의원 에드 로이스의 지적처럼 ‘불행한’ 햇볕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는 “이번 한국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불행



도준호

·본회 이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 U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유력 세후보의 정책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후보는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 ‘대북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는 햇볕정책의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안철수무소속후보는 퍼주기과 투명성

이 결여됐던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햇볕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들 가운데 특히 우려스런 것은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문재인후보의 대북정책이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북한대표를 대통령취임식에 초청하겠다고 했다. 남북

경제지점인 도라산역으로 노무현정부때의 통일부장관들을 초청해 남북경제연합 첫회의라는 이상한 회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경제는 평화’라는 이상한 논리로 남북경제협력에 이상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남북간에는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남북대결분위기는 가능한한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이란 상대가 있기 마련이며 상호간 신뢰가 쌓이는 등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말만으로 원활한 경제협력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좌파정부의 행동패턴을 그대로 답습해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김대중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쓰면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이라며 퍼

5면으로 이어집니다.

# ‘대한언론상’ 영광의 얼굴 기리다



시상식장에 선 수상자들과 본회 임원들.

## 시상식 대성황

대한언론인회는 10월 16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1회 대한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의 대한언론상은 언론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한국 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특별공로 부문)과 문화일보 이병규 발행인겸 편집인(논설 논평부문), KBS 시사제작 2부 심수련 기자, CBS 보도국 사회부 이대희 기자, CBS전북방송 보도제작국 이균형 임상훈 기자(이상 기획취재부문)가 받았다.

1부 시상과 2부 만찬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언론상을 수상한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원로 선배 언론인들이 주는 값진 상의 의미를 되새겨 언론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용중 원로 회우는 축사를 통해 “모든 수상자들의 공적이 탁월하지만 그 중에서도 CBS전북방송 이균형 임상훈 기자의 투철한 고발정신이 돋보인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CBS 이재천 사장, 한국일보 박진열 부회장, 조명식 한국디지털신문 사장이 자리를 빛내주었고 김재호 한국신문협회 회장과 우원길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서면으로 축사(별항 참조)를 보내왔다. [별항 참조]

### 축사

한국 언론과 역사를 함께해 온 대한언론인회의 제21회 대한언론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언론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대한언론인회 후원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인 여러분의 뜻 깊은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한언론상은 선배 언론인들이 후배 언론인들의 공로를 평가하고 시상한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상보다 그 의미가 깊습니다. 대한언론상을 받은 후배 언론인들은 각별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대한언론상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언론의 발전을 이끌고, 선후배 언론인들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대한언론상을 주관하는 대한언론인회는 원로 언론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

## 언론발전 이어가는 버팀목



김재호

·한국신문협회 회장

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대한언론인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의 본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배 언론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와 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은 후배 언론

인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배 언론인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후배 언론인들이 자유언론과 민주시민사회를 위해 열정을 바친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한언론인회가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1회 대한언론상 시상식을 축하드리며 대한언론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별항 참조]

### 격려사

## 자유언론-공익추구 높이 평가

우선 제21회 대한언론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를 맡으신 김성배 부회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도 대한언론상은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 사항에서 보듯이 우리시대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국체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고 그 본연의 사명은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대명제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를 한시도 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자 모두가 자유언론을 통해 사회공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한 점은 언론 본연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온 값진 행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과 수상자 가족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그동안 대한언론인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별항 참조]

### 축사

먼저 수상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공적들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짚어주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군수와 브로커의 검은 거래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 비리와 같은 권력에 대한 감시들은 언론이 아니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중요성과 역할을 새삼 돌아켜보게



우원길

·한국방송협회 회장

합니다.

최근 들어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가 늘어나고 언론인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저널리즘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고민도 커진 것입니다. 저널리즘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만큼 수상자 여러분들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 언론과 사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항 참조]

#### ◆시상식에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분

- 한국신문협회 회장 김재호
- 한국일보 회장 장재규
- CBS사장 이재천
- 문화일보사
- 한국디지털신문 사장 조명식
- 한국잡지협회 회장 이창의

#### 4면에서 이어집니다.

주기라는 비난까지 들어가며 식량등 대북지원을 왕창하고 무려 5억달러의 거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했으나 북한은 받아 먹을 것은 다 받아 먹고서도 뒤에선 핵을 개발했다. 노무현전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것이 깽판 나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할 정도로 남북관계개선에 올인했으나 그의 재임 중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0~2007년 사이에 북한에 연리 1%에 불과한 쌀 240만톤, 옥수수 20만톤(작년 말 기준 약 1조원)을 차관형태로 지원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지난 6월 1차분 583만달러(67억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상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재인후보는 10·4선언이 노무현정부의 대단한 업적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핵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북한도발을 막기위한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100조원이 들어 가는 경제지원을 찬성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일지 궁금하다. 대선후보들의 북한달러가기, 특히 문재인후보의 경제협력 최우선주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로이스 의원의 말처럼 “한국정부의 호주머니에서 즐겁게 달러를 꺼내고서도 핵폭탄을 제조했다”는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권력은 자체 작동원리, 즉 모든 것을 수령독재체제유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따라 판단하지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부에선 서구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뭔가 다를 것이

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는 최근 보위부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적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이나 양보는 곧 죽음이며 자멸의 길”이라며 “원수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쉬 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고 벌이고 어리석게도 판공을 꾸는 불순적대분자를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경직된 대북정책을 운용하긴했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 줬는데 최근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이 원칙을 허물 우려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대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사고는 동북아신냉

전구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정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남북관계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중국의 굴기로 동북아는 역사, 영토, 핵문제, 군비증강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일간, 한·중간, 일·중간 마찰이 우려되며 미·중간 마찰도 예상된다. 이런 복잡한 구조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한·미동맹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북한은 이 틈새를 이용해 어느때보다 많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동북아구도는 외부의 영향을 배제한 채 남북간의 관계개선의 여지를 그만큼 줄여들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북정책을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경제협력만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눈박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별항 참조]

# NLL관련 안보관 검증 본격화

‘공짜 경쟁’으로 질척대던 대선에 초 대형 안보 이슈가 급부상했다. 국가 리더십에 안보를 능가하는 가치가 없으니 다행스럽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은 국감에서 “NLL포기를 밝힌 비밀대화록이 있다. 2007년 남북 단독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NLL은 미국이 팽파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앞으로 남측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쟁에 불을 댕겼다.

믿기 어려운 이런 국가안보 불감증 의혹은 노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실세였던 문재인 후보로 불뚝이 튀었다.

## 노출 원치 않아 기록 폐기?

조선 동아 중앙 문화 등은 일제히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열람을 주장하며 논란의 종식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NLL포기발언의 증거를 대라고 맞섰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나쁜 정치본색”,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면 평양에서 그가 한 언행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16일 ‘NLL 포기 발언, 여야 공동 열람으로 의혹 씻으라’는 사설에서 “NLL은 1953년 6·25 정전 이후 남북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고 북한도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인정했었다. 논란을 더 끌고 가면 야당은 뭔가 진상을 감추려는 듯이 비치고 여당은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뿐”이라는 논지를 폈다. 동아일보도 17일 사설 ‘朴-文 후보가 풀어야 할 정수장학회와 NLL 논란’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 대화록을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한다. 진위를 가릴 물증을 제쳐둔 채 소모적 정치 공방이 거듭되니 국민은 짜증스럽다”고 공개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18일 “회담록 원본은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 국정원에 남겨놓았다고 확인한 상태다. 대북 정책을 입법할 국회나 대북 정책을 내놓고 경쟁해야 하는 후보들이 영토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10월18일 사설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NLL 공세’에서 “정상회담 배석자들은 ‘엔엘엘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정조사나 문서 공개 타령만 하는 것은 스스로 대선용 정략이라는 걸 시인

##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것은 안보의식을 저해한다. 한국일보는 19일 이동준 교수 기고문에서 “여야가 노 대통령이 남긴 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또 ‘종북 올가미’를 뒤집어쓰기 위해 사생결단 편을 가른다면 우리 안보만 다친다”고 영뚱한 패해론을 쳐들었다. 안보관 검증은 분단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의 국가수호 의지와 북한을 개혁·개방시킬 전략을 살펴보는 필수 절차다. 그러므로 ‘신북풍’도, ‘종북 올가미’도 아니다.

## 主要紙 ‘평양대화록’ 공개 주장 “제2노무현 등장 안된다” 지적

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북이 엔엘엘을 존중한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은 9월29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보도담화에서 “북방한계선의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X의 떠벌림이나 다른 NLL 고수 주장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말해 무슨 이면합의라도 존재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었다. 청와대 시절 하드디스크를 몽땅 봉하마음로 가져간 뒤 비난이 일자 돌려준 ‘노무현 스타일’도 의혹을 사기 쉽다. 한편 한겨레는 사설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엔엘엘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과 국토수호 의지를 (NLL논란에) ‘슬쩍 끼어들었다’고 묘사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영토수호 의지를 비하하는

## ‘종북 사안’ 진실규명 역설

한겨레와 대칭이 되는 논지가 문화일보다. 이 신문은 “국정 감·조사는 물론 관계기관의 수사까지도 동원해 사실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한 달 뒤 “NLL 관련 어떤 합의를 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치권이 역사의 영역으로 넘겨야 할 박정희 정권 당시의 일들은 진상 규명이나 국회 결의 등을 추진하면서 ▲일심회 간첩단 수사 중단 ▲김현희 가짜 만들기 및 황장엽 탄압 ▲제2연평해전 ‘우발적 충돌’ 조작 ▲국정원 내 대북 라인 숙청 ▲민주화 보상 미명 하의 이적·종북 세력 지원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김·노 정권 당시의 ‘종북 과거사’들을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진실 규명을 역설했다. 세계일보는 6일 사설에서 “‘안보 책임자가 없다’는 응답이

여론조사에서 40% 가까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갈등 조율 문제가 차기 정부의 도전적 과제다. 국가 안위는 도외시한 채 사탕발림 공약만 늘어놓는 후보에게 국가 존망과 국민 생명을 맡길 유권자는 없다”며 안보관 검증을 역설했다.

## 햇볕정책 불행한 유턴경고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은 “세 후보 누가 당선되든 간에 햇볕정책으로의 불행한 유턴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대북 유화책이 한미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노 정부는 69억 5천만 달러(약 7조7천억원)를 쏟아 부었지만 북한은 경제를 개혁하거나 정치체제를 안 바꿨고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았다. 상호주의 없는 포용정책으로 남북간 긴장은 완화되었지만”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17일 배인준 칼럼 ‘文후보의 북한觀 노무현과 다른가’에서 “김·노 정부가 북에 퍼주지 않았다면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던 저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간첩 수사마저 청와대 등의 제동에 걸렸던 시절이다. 국민의 안보 불감증이 깊어지고, 국군조차 적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만 것이 그때였다. 문 후보는 ‘안보는 보수가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안보의 결과는 노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하게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북세력이 국가 중추기관에 대거 진입한 때가 언제인가. 민노총 전교조의 종북파가 대한민국 체제를 공격하고, 교육현장까지 안보를 깨도록 방조한 것은 어느 정부인가. 우리 국민은 제2의 노무현을 불러내선 안 된다. 18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물의 안보관 대북관을 보다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세 후보의 ‘안보 끝장토론’을 제언했다. 참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4]

## ‘국토대청소운동’ 전개

본회 산악회, 오대산서 시작

대한언론인회산악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10월 19일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에서 산행을 하며 등산로에 널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국토대청소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정운종 산악회장이 주창

해 벌이기로 한 국토대청소운동은 앞으로 대한언론인회 차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국토대청소운동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 ‘국토대청소운동’ 선언문

‘요즘 우리나라는 등산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국 각처의 등산로와 둘레길 주변 자연경관이 크게 오염되고 황폐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열경쟁으로 조성된 둘레길이 마구 버려진 쓰레기로 거의 걸레 길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이 같은 현실을 개탄, 우려하면서 등산객은 물론 모든 국민이 시민의식을 발휘해 범국민적 국토대청소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창한다.

또한 전국의 각 지방 자치단체는 둘레길 조성도 좋지만 모든 등산로가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촉구한다.



본회 산악회 회원들이 오대산 소금강에서 ‘국토대청소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조명동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

# 갈증 못푸는 대선후보 정책 분석

18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우리 사회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선거에만 집중된 듯하다. 인터넷에서부터 신문은 물론 지상과 방송 등 모든 매체도 선거 관계 기사로 꽉 차 있다. 관심이 큰 만큼 기사는 보다 자극적이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이란 이름을 빌려 공격적일 뿐 아니라 네거티브에 선정적이기도 하다. 방송은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이미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는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당이나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며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후보 공약 검증 특별 조식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다른 선거 때보다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 보도는 불가피하게 정당 행사나 후보의 언행을 쫓아 다니게 돼 현상 추수적일 수밖에 없고 자연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등 부정적 기사가 정책과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나 우열을 종종 압도하기도 한다.

## 프로그램 편성에도 못따라

올바른 선거보도를 위한 방송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아쉽게 생각되는 실제 예를 들어보자.

KBS는 10월 21일 일요일 아침에 언론이 선거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반성하면서 유력후보의 선거대책위나 관계자와 함께 각 후보 진영의 대선 전략을 제대로 알아보겠다는 일요일단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황상무 앵커가 52분 동안 진행하는 정규 시사 프로그램이다.

“..... 안타까운 것은 경쟁은 뜨겁지만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정책경쟁은 보이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어 공방만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각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서 각 진영의 필승전략이 무엇인지, 미래 국가 발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나름대로의 반성과 의욕, 프로그램의 편성 의도를 밝혔지만 시청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총 52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방송사는 세 사람에게 각각 정확히 3분의 1인 17분 30여초를 할애해 우선 기계적 공정성을 보여주면서 각 후보의 정책과 전략을 나름대로 끌어낸다고는 했으나 역시 그동안 각 당이 내뱉던 공약과 정책에 앞서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편성 의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진행자는 이해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 “박근혜 후보의 용인술을 보여주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중책을 맡기면서도 정작 공천에서는 탈락시키는 것이 무슨 이유이나”면서 이른바 친박, 친이로 대표되는 당내 갈등 봉합의 여부를 묻고 답하는데 5분여나 소비했다.

후보의 내면을

방송시평



오건환

- 본회 회우
- 전 KBS 파리총국장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 선대위 관계자 인터뷰 걸돌기 말만 잘하는 정치평론가 양산

파헤치는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정책, 공약 검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문제, NLL에 있어 야당입장에 대한 생각,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과 대책 등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 문제로 시간을 다 허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나마 새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필승 전략을 정리할 시간은 50초가 채 안되었다.

이 시간에 이해훈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바라는 것이 제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만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후보는 민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집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그걸 잘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면서 말을 맺었다. 진행자는 ‘구체적 과제’가 무엇인지 이끌어냈어야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진행자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NLL에 대한 입장,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서 이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려는 모순점을 지적하고 야권단일화 문제와 송호창 의원의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로의 이동으로 빚어진 의원 빼가기 여부 등 이미

논의된 문제만을 묻는데 그쳤고 이목희 위원장도 전혀 새로운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통합민주당의 국정 3대 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분배라고 밝히긴 했으나 국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누리당도 같은 정책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뿐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지는 못했다고 보고 “이런

국정 지표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이 문재인 후보”라는 말로 50여초만에 마무리했지만 얼마나 많은 시청자를 끌어 들였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본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송호창 의원 역시 민주당 탈당에 대한 질문이 집중돼 안 후보의 공약과 정책 검증은 없이 계속된 정치공방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시간을 모두 보내고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하는 선언적 명제를 던진 것 말고는 기억에 남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이런 내용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그러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이 아닌 새 정권을 국민들이 원한다.”는 50여초의 결론을 유권자 가슴에 새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를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계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더더욱 노력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란 믿음을 가진다.

## 방송계에 새 직군 생긴듯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미디어에 뚜렷이 나타난 현상중 하나가 이른바 정치평론가의 대거 등장이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 이렇게 사계의 전문가와 평론가가 많았고 특히 정치평론가가 많아졌

는지 모르겠다. 특히 방송은 프로그램 구성상 전문가라는 평론가가 필요하기는 하다. 필자도 방송사에서 일할 때 프로그램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직접 출연도 시키고 그의 의견이나 코멘트를 반영시키거나 자문도 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뉴스나 제작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방송에 이른바 평론가란 이름을 달고 이 방송, 저 방송에 바빠 얼굴을 내밀며 출연하는 직군(?)이 생겨났다. 하기가 장거나 바둑의 혼수꾼들은 상수보다는 하수가 더 많듯이 제대로 된 전문적 지식이나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사람들도 평론가란 이 직군에 끼여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사람은 훈련을 통해 능력이 성장하지만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도 없이 말 한 번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평론가로 등장한 예를 수 없이 보아왔다.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형 시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현상이었다.

방송이 다매체 시대를 맞으면서 방송 전문가 수요가 늘고 몇몇 사람은 스타 반열에 들어 인기인이 되기도 했다. 더구나 인터넷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정통 보도와 예능 프로그램을 섞은 혼합 프로그램의 유행 등에 따라 부담 없는 시사 토크의 등장 등 방송환경 변화는 평론가가 되기 쉬워진 감이 있다. 심하게 얘기해서 방송이 이른바 평론가를 양산해 공급초과에 따른 자격미달(?)의 평론가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만들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정치의 계절에 물 만난 정치평론가들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유도하고 정확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분석하기보다 자신의 주관적 견해와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편에 서다 끝내 캠프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태도를 자주 보게 된다. 흔히 시중에서 주고받는 농담으로 온 국민이 정치평론가이고 온 국민이 시사평론가라고 할 만큼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현상을 투시하는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니 방송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신뢰도를 위해 아무나 평론가란 이름을 붙여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방송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바르게 이름을 붙여야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된다. [E]

## 본회 산악회 가을산행 성황

지난 10월 19일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오대산 국립공원 노인봉 소금강 계곡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들었다. 이날 산행에는 44명의 회우가 참석해 전세 버스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룬 산행이었다. 국립공원 소금강 분소를 출발해 만물상을 다녀오는 왕복산행(약 8km·4시간 소요)으로 이루어진 소금강 탐방은

계곡을 오를수록 전개되는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단풍, 이어지는 폭포와 암반, 기묘하게 이루어진 층벽과 그 아래로 흐르는 맑은 계류 등 30여 곳의 절승지를 거느린 대한민국 명승지 1호로 지정될 만큼 곳곳마다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무릉계를 시작으로 십자소 연화담 식당암 삼선암 구룡폭포 대왕폭포 세심폭포 만물상 선녀탕 백운대 삼폭포 광폭포 낙영폭포 등을 소금강의 대표적인 절승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만물상 지역에 우뚝 솟아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귀면암(鬼面岩)은 국보급으로 지정될 만큼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다. 다만 명칭에 왜 ‘귀신 귀(鬼)’자를 붙였는지 의아스럽기만하다.

국립공원 오대산은 국도 진고개를 사이에 두고 비로봉(1,563.4m) 호룡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등 5개봉을 거느리고 월정사 상원사가 있는 오대산 지구와 노인봉(1,338m)을 중심으로 하는 소금강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진고개에

서 시작해 노인봉을 거쳐 소금강 계곡으로 내려오는 장장 14km 7시간의 산행로가 대표적이지만 이날 우리 일행은 체력에 맞게 소금강 분소에서 만물상을 다녀오는 왕복 코스를 택했다.

이날 흥원기 회장, 강진형 강한필 김백산 안종우 우제근 이윤래 조창화 정운중 지용우 최귀조 회우가 금일봉을, 황귀근 광고국장은 막걸리를 찬조해 산행에 도움을 주었다. [E]

(글=이상호 회우)

# 음악성 뛰어난 ‘제2의 싸이’ 기대

요즘 남녀노소 세계인들이 싸이의 말춤을 즐기고 그가 부른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겨워하고 있다. 싸이라는 우리 가수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글로벌 슈퍼스타로 떠 오른 것이다. 그의 뮤직비디오 ‘강남 스타일’이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된 지 3개월만인 10월로 조회 수 3억여 회를 기록했다. 세계 대중음악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영국의 음악차트는 물론 인구대국인 중국의 음악차트에서도 인기 순위 최상위를 평정하는 등 ‘강남스타일’은 쉬지 않고 국내외에서 각종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사에서 보면 상상을 넘어선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싸이의 세계화 현상을 두고 좀 더 흥분하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고속으로 실현한 대한민국이 이제 한류로 일컫는 대중문화산업까지 빠른 기세로 영역을 확장해 가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싸이가 말춤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우스꽝스러운 춤에 한국식 언어표현을 반복적으로 조합한 노래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순식간에 K팝의 판으로 발각 뒤집어 놓은 사태를 어찌다 맞아떨어진 운수대통의 요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빌보드 싱글차트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뮤지션 반열에 오른 것인데 싸이는 단숨에 싱글차트 2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니 기적을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 싸이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기적이나 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의 뮤직비디오는 우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엉뚱하고 새롭고 재미있고 신나는 몸짓과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노래와 맞물려 절묘하게 흥을

돋우는 말춤이 인기에 불을 질렀다. 동글납작하게 생긴 얼굴에 처진 뺨살, 과체중처럼 보이는 몸집이 경쾌하게 움직이며 흔들려대는 춤이 말춤이라니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찾아 몰려다니는 이 시대 세계인들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김두호

·본회 회우  
·전 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  
·인터뷰 365회장  
·영화 평론가

## ‘강남스타일 붐’ 요행아닌 실력 후속곡 이어 K팝 새도약 예고

동영상 음악 콘텐츠로 인정을 받은 것이므로 ‘싸이의 음악’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성공한 것으로 봐야 옳다.

싸이의 성과는 그 혼자만의 공으로 볼 수 없는 부문도 많다. 비록 세계적인 히트음악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10여 년 전부터 우리 가수들이 세계 각국에서 K팝 공연으로 인기를 꾸준히 구축하며 길을 닦아온 팍방울도 보탬이 됐다. 또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통신 활용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젊은층의 참여와 공유에 대한 극성 에너지가 신나게 춤추며 재미있게 부르는 노래 ‘강남스타일’의 불을 지피는 촉매 역할도 했다.

어쨌거나 ‘강남 스타일’의 주인공은 싸이다. ‘싸이코’에서 따왔다는 예명부터 특이한 35살 유부남 싸이(본

게임을 추며 ‘새’라는 노래로 시작된 그의 음악인생은 굴곡도 많았다. 대마초 사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부실근무와 관련해 두 번 군복무를 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인기와 좌절을 반복했던 그는 2010년 5집 앨범 ‘싸군’에서 ‘맞아도 싸군/죽어도 싸군/새 됐어 외치다 엽기가 수 용됐으... 예비군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같은 날 받아 본 놈 있나...’를 노랫말에 담았다. ‘온사마(배우 배용준)처럼 환한 미소가 있나/비(가수)처럼 뺨 가는 몸과 춤이 있나/하나 딱하나 좌우간 공연과 음악/힘나게 신나게’를 가사에 담은 것 등 그의 음악들이 대부분 자기의 뉘트리라 고 할 얘기를 경쾌한 멜로디로 살려 낸 것들이다.

명 박재상)는 잘 생긴 얼굴에 가창력과 세련된 춤 솜씨로 겨루는 가요무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개성의 엔터테이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 자작 노랫말부터 언젠가 무슨 일을 낼 것 같이 엉뚱하다 못해 엽기적인 언어로 이어지고 있다. 2001년 날

2006년에 부른 ‘위아더 원’ ‘We are the one’에서는 ‘승자는 결국 질긴놈/ 백번이고 천번이고 나는 미친놈/ 넘어질 순 있어도 쓰러질 수는 없어/일어나 일어나’를 외쳤던 싸이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12년 만에 결국 질기게 일어나 세계적인 승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싸이의 인기 쓰나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로 최근 중앙일보가 미국 현지 인터뷰로 소개한 빌보드의 음악담당 편집장 벤저민 잉그램의 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처음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웠다면서 재미난 춤을 가미해 듣기만 하는 곡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싸이도 스스로 ‘웃겨서 성공한 것’으로 밝혔지만 춤과 노래와 웃음은 국경과 언어의 벽을 넘어 인류가 모두 즐기고 좋아하는 재료다.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강남으로 몰려와 ‘강남스타일’의 쇼핑도 하고 있다니 서울의 강남은 싸이 덕분에 PR면에서 황재를 한 셈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싸이의 인기가 후속곡으로도 이어지길 바라지만 세계 음악시장은 춤이나 비디오 영상보다 음악성이 우선되는 치열한 경쟁 무대이기 때문에 비슷한 포맷으로는 기회가 또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 K팝의 뮤지션 중에 제2, 제3의 싸이 같은 인기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에 알려주고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싸이의 ‘강남스타일’ 기여도는 우리 뮤지션들에게 먼저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필자]

16세기 조선시대 쿠데타로 왕좌에서 쫓겨난 15대 임금 광해가 21세기 2012년 대선을 앞둔 정치계열 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주창민 감독, 이병헌·한효주 주연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한국영화사상 일곱번째로 1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쾌거를 기록했다. 이 영화가 대박을 터트린 결정적인 요인은 영화의 완성도도 작음됐지만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자꾸만 연상되는 내용에 있다고 본다. 영화 ‘광해,---’는 사극이란 옷을 입었지만 오늘의 정치 현실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해시대의 가상적 역사를 빌려 오늘의 한국정치를, 아니 대선정국을 풍자한 것이다. 이 영화의 내용과 메시지가 오늘의 대선정국과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영화를 시종 관통하는 메시지는 ‘좋은 임금이란 무엇인가?’이다. 좋은 임금은 12월 대선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연결된다. 조선 15대 왕 광해는 선조 후궁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진왜란 중

## ‘歷史’를 빌린 정치드라마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고



김 화

·본회 전문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에는 의병을 일으키고, 굶주린 백성을 위로했으며, 왕이 된 후에는 대동법을 실시해 가난한 농민을 보살피고, 쇠락하는 명과 일어나는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 외교를 시도했지만 대신 등 기득권층과 명나라를 숭배하는 사대주의자들의 반대와 극심한 당쟁에 시달렸다.

광해는 말기에 이복동생을 죽이는 등 폭정을 하다가 불과 1천5백명 군사의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나 제주도로 유배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다. 역사는 연산과 함께 ‘왕’을 떼고 ‘군’으로 격하했다.

이런 광해를 영화는 ‘가짜 광해’를 내세워 재평가하고 좋은 임금으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가짜 광해를 내세워 치적을 펼쳐가는 영화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다. 창의적이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본영화에 ‘가게

무사’가 있었고 미국영화에도 비슷한 장르가 있었다. 그러나 감독은 사극이란 우회적 수법을 통해 오늘의 시대정신을 전하고 있다. 역사의 교훈을 들어 오늘의 정국을 풍자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관객의 가슴을 두드리고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주 감독은 영화를 알미울 만큼 영리하게 끌고 간다. 전반은 코미디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후반은 정치드라마로 12월 대선에 메시지를 띄우고 시대정신을 촉구한다. 관객들은 웃다가 어느 새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어느 대선 후보는 이 영화를 보고나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 탓에 기자 질문에 대답도 못했다.

광해 8년, 대동법 실시를 두고 조정의 찬반 양론으로 갈등을 빚으며 격심한 당쟁에 휩싸인 데다 암살 위협마저 받는다. 고된 끝에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과 용모가 똑같은 사람을 잡아오라고 한다. 도승지는 저자거리의

9면으로 이어집니다.

## 溫故知新

### 안시성(安市城)의 승리

고구려 망국 시 당군과 내통해 평양성 성문을 열어준 역적 고요묘(高饒苗)의 묘지석이 최근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묘지석에 따르면 고요묘는 나라를 배반한 대가로 당에서 3품관인 원외장군직을 받았다.

고구려가 망한 것은 668년 9월 26일. 올해는 양력으로 11월 9일의 일이었다. 그날 새벽, 반역자 고요묘가 성문을 열자 나당연합군이 물밀듯이 성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나라는 그날 망하고 말았다.

700년 역사의 고구려가 건국 50년 밖에 안 된 당나라에 하루아침에 망한 원인은 내우외환 때문이었다.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이반하니 안보가 허술해지고, 외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죽고 그의 아들 3형제가 골육상쟁을 벌이자 고구려는 내분의 여파로 급격히 국력이 약화했다. 그래서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침공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망한 것이다.

하지만 644년부터 시작된 제1차 고당전쟁은 고구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특히 645년 6월부터 9월까지 벌어진 안시성(安市城)전투는 한국사에 길이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30만 당의 침략군이 안시성을 포위한 것은 그해 6월 20일. 열 배나 되는 적군에게 포위당했지만 성주 양만춘(楊萬春)은 탁월한 통솔력으로 성민과 군사들을 지휘해 성을 훌륭하게 지켜냈다.

시간이 갈수록 당군의 피해는 늘어갔다. 날마다 맹공을 퍼부었지만 성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세민의 명에 따라 당군은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토산을 쌓았다.

그런데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쌓은 토산을 하루아침에 고구려군에게 빼앗긴 것이었다. 이세민은 대노하여 즉각 토산을 탈환토록 했다. 사흘을 두고 토산을 맹렬히 공격했지만 끝내 되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세민은 안시성에 발목이 잡혀 석 달이나 되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4월에 요하를 건너왔으니 사실은 이곳에서 반



황원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년을 보낸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급에 달린 것이다. 게다가 벌써 9월. 요동에는 겨울이 일찍 온다. 눈이 내려 쌓이고 얼음이 얼면 50만 대군은 연개소문과 고구려군보다도 굶주림과 추위에 못이겨 전멸하고 말 것이다. 이세민은 안시성의 포위를 풀자마자 급히 퇴각을 시작했다. 그것이 9월 18일. 올해는 양력으로 11월 1일이다.

그런데, ‘자치통감’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황제는... 안시성 밑에서 군대의 위엄을 보이고 돌아갔다. 성 안에서는 모두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았으나 성주가 성에 올라 절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황제는 그가 성을 굳게 지키

것을 가상히 여겨 비단 100필을 주면서 임금 섬기는 것을 격려했다. -

기막힌 거짓말이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역사왜곡이요 날조다. 겨우 수만 명이 지키는 안시성 하나를 황제란 자가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하여 몇 달씩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퇴각하지 않았던가. 추위가 다가오고 군량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달아나는 주제에 무슨 겨를이 있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위세를 과시했던 말인가. 더군다나 성주에게 성을 잘 지켰다고 상을 주었다니, 이야 말로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이는 저희 황제가 패퇴한 치욕을 조금이라도 숨기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중국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한 것에 불과하다.

1300년 전에는 이처럼 용장했던 고구려도 무상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발해도 망하자 우리는 드넓은 요동과 만주 땅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 중국은 그것도 모자라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 또 그에 앞선 부여와 고조선의 역사까지 빼앗아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역사를 되새기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자는 말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미래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없다. 지나간 과거가, 역사가 교훈을 준다. [4]

#### 8면에서 이어집니다.

한낱 비천한 만담꾼을 잡아온다. 광해와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왕이 된 광대 하선은 궁중의 질식할 것 같은 예의법도를 보고 “왕도 싫고 상놈 광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권력은 그의 소박한 소망도 꺾고 왕 연습을 시킨다.

왕 실습은 코미디의 연속이다. 변소가 없어 이틀이나 대변을 참느라고 생고생을 한다. 나중야야 왕의 대변은 ‘매화’라고 부르며 나인이 변기인 ‘매화틀’을 방으로 가져와서 대변을 마치면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인이 흰 광목을 두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항문을 닦고 뒷물을 한다. 가짜 왕은 기겁하고 나인에게 “저리 가라!”고 손짓을 연신 한다. 이 것 뿐인가. 수라상 음식을 남겨야 나인들이 남긴 음식으로 요기를 하는데 싹쓸이로 먹어 나인들의 배를 굶게 하는 해프닝의 연속.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가짜 광해는 일부러 수라상 음식을 많이 남기고 야참 팔죽도 맛이 없다고 한 손갈만 들고 그대로 물리쳐 나인들의 배를 채우게 배려한다.

궁중법도를 익혀가는 가짜 왕은 도승지 허균으로부터 임금의 말투와 신하를 대하는 법 등 권력행사를 배워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진짜 왕처럼 국정을 보살피고 대신들의 탐욕을 견제해 나간다. 처음엔 도승지가 왕좌에 앉고 가짜 광해가 앞 신하 방석에 앉아 왕 실습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짜 왕이 진짜 왕의 틀을 찾아가자 도승지가 왕좌에 앉은 가짜 왕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처음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포스터.

가짜 왕을 때리기도 했지만 역전되어 도승지는 가짜 왕에게 신하의 예를 다한다. 이 와중에서 진짜 광해는 반대파의 암살계획으로 마약을 먹어 의식 불명이 되고 도승지는 은밀한 곳으로 옮겨 치료를 하게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짜 왕은 진짜 왕 노릇을 하게 된

다. 가짜 왕이 진짜 왕보다 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살피게 되면서 영화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혁신정치의 대립을 보여주며 좋은 왕의 길을 모색한다.

영화 후반부는 권력의 속성과 가짜 왕이지만 어떻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가를 보여준다. 신하들이

의결한 대동법 반대를 물리치고 백성을 위한 것이니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려 도승지를 놀라게 한다. 명은 후금과의 전쟁에서 조선에 2만 명의 원군을 요청한다. 가짜 왕은 파병을 반대하지만 대신들의 강력한 사대사상을 꺾지 못해 마지못해 파병하지만 파병군의 반은 전투력이 형편없는 군인으로 채운다. 명의 요청으로 파병하면서 가짜 광해는 “후금과 싸우는 척만 하라고 했다”는 밀서를 후금에 보낸다. 실리의외교로 줄타기 외교로 강대국 사이에서 조선의 생존을 찾으려 했다. 오늘의 미·중 2강 사이의 한국외교가 비유되는 장면이다. (실제로 1만3,000명을 파견, 9,000명이 죽고 3,000명만 살아왔다)

이 영화에서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다면 가짜 왕이 자신을 진짜 왕으로 착각하고 나라의 생존을 걱정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살피는 데 있는 것 같다. 가짜 왕의 왕 노릇도 보름 만에 끝나지만 짧은 기간에 선정을 베풀었다. 나인 사월이의 억울하게 헤어진 부모를 찾아주고, 대동법을 실시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려 했고, 동침은 안 했지만 매마른 왕비의 가슴에 연민의 정을 심었다. 그리고 가짜는 떠났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코미디로 야단법석을 요란하게 떨었지만 주제와 메시지는 딱 하나다. ‘어떤 왕이 좋은 임금인가?’이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내린 결론은 ‘최고의 왕은 백성을 임금처럼 섬기는 임금’이다. 극장을 나선 나의 고민은 12월 19일 세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로 이어졌다. [4]

# 뛰어난 문장력 체육기자 巨木 ... “약속 잊

##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2)

회우초대석

金珉熙

인터뷰

김광희(金珉熙) 회우는 연임해서 3년째 東亞日報 東友會 회장이다. 충청도에 있는 동우회 사무실로 찾았다. 대한 언론 회우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건강’이라고 했다.

### “운동 열심히 합니다”

“며칠 전, 같은 날에 한국일보 체육기자 출신이며 논설위원을 지낸 오도광 씨와 프로야구 산과 역할을 한 원로 야구인 이호현 씨의 부음을 듣고 허무함을 절감 했습니다. 빈소엔 가지 않았죠, 양해는 구했지만.”

주변 친구들이 세상을 뜨는 것을 보면서 건강의 중요함을 절감한다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우는 기상하면 침대에 누운 채 30분 정도 몸 푸는 요가를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데 3천보 정도 걷는 운동이 된다. 그리고 오후에 집 근처 홍제천 변을 3km정도 걸은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운동을 30분 정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아령을 쯤하고 샤워한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라고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한다는 김 회우는 혈당이 좀 있어 당뇨식단 등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다.

3~4년 전에 당뇨발로 입원했던 끔찍했던 사연을 들려줬다. 당뇨발로 입원해서 엄지발가락 절반을 잘라낸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고 그 뒤로 건강과 운동에 공을 들인다고...

### “약속 없으면 만들죠”

외출했다 귀가 하면 첫 번째 일이 다 이어리 정리다. 약속한 기억을 되살려다 이어리에 메모하는 데 꼭 차야지 빈 공간이 있으면 답답하단다.

‘비는 것이 답답하다’는 말에서 김 회우가 얼마나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 하는지를 느끼게 했다. 다 이어리를 채우는 것은 주로 점심약속이고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이 대부분인데 다 이어리가 비어 있으면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이다.

요즘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동우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데 옛 동료들을 만나는 게 참 좋은 시간이라고 했다. 사람을 좋아하는 김 회장의 인품이 반영되어서 인지 東友會 사무실 분위기도 다른 社友會 사무실과는 다르게 활기차 보였다. 인터뷰 중 전화가 왔다. 통화 내용을 훑쳐 들었더니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전화였다. 선약이 있어 미안하다면서 다음에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느낌이 좀 그래서 누구시냐고 실례인 줄 알면서 물었더니 동아 사우이며 대한 언론인회의 안평선 회우라며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안평선 선배의



“뭐니뭐니해도 가장 귀한 것이 건강”이라며 지나온 일과 최근의 활동상을 얘기하는 김광희 회우.

온화한 미소가 생각나서 후배인 필자도 덩달아 행복했다. 여가가 있으면 건강을 위해 보내야 한다는 김 회우는 집에서 TV나 보고 있으면 몸도 정신 건강에도 이로울 게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아차! 여가 있으면 집안에 박혀 TV 채널에 매달리고 시간 있으면 신문과 책에 의지하는 필자에게 주는 따끔한 충고로 들렸다.

### 원하지 않은 스포츠 기자

올해 희수(喜壽)인 김 회우는 경북 경산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를 마친 후 대구로 진학해서 계성 중·고를 다녔다. 고2때 6·25를 맞았는데 육사 출신 대령이었던 형님이 멋져 보여 뒤따르려고 육사 13기로 합격해 진해에서 공부했다. 그 때 자신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다른 생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봤다.

육사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이었다. 6·25가 끝나면서 생각이 바뀌어 자퇴하고 사병으로 재입영해서 상병으로 제대했다. 서울로 진학해서 고려대학교 상과를 졸업했다. 그 때도 취업은 어려웠다. 고대 상과 졸업생도 15% 정도만 취직이 됐다. 졸업후 학교의 추천을 받아 한국은행에 응시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해 怏怏不樂하던 중 서울신

## 陸士 13기 자퇴...처음 쓴 기사가 64년 東京 올림픽 계기 동아일보

문 견습 기자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다.

그런데 신문사의 공고가 묘했다. ‘김광희 任 見習記者 命 休職’이었다.

성적은 우수했으나 신체검사에서 폐결핵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3개월 요양 후 견습 기자로 출근을 시작했다. 동료들은 이미 경찰서 야근 찰찰이 경험 등으로 포록포록한 기자 모습들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꺾다 놓은 보릿자루 형국이었다. 경찰서 출입기자로 출발해서 사회부 기자가 되려고 했는데 고재경 편집국장이 불렀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필리핀 야구팀을 초청했는데 체육부는 이유형 부장뿐이고 취재기자가 없으니 도와주라는 명령이었다.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데...

필리핀 야구팀 도착 3일전인가 이 부장의 지시가 간단명료했다. “김 기자 취재해!” 그걸로 끝이었다. 서울 운동

장 야구장으로 달려가서 야구 용어 등을 배웠다.

드디어 D-Day, 생애 처음 취재를 하는 날이다. 데스크의 지시는 “본대로 쓰라”였다. 첫 기사, ‘본대로’ 썼다.

그런데 그 야구 기사가 다음 날 사회면 톱에 실린 것이었다. 김 회우의 취재능력과 필력이 처음부터 두드러진 결과였다. 동료들은 난리였다.

그래도 사회부 기자가 돼야 하는 데 시간이 갈수록 체육기자로 굳혀지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놔 줘야지, 꼼짝 못하게, 미치겠더라구!”

용기를 내서 고재경 편집 국장을 만났다. 고 국장은 체육부에 그냥 있으면서 사썬마우리도 함께 하도록 배려했다. 그래서 남대문서와 중부서를 맡았다. 12월 남대문서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심각한 표정의 시경국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알아보니 설을 앞둔 서울역에

# 있는 날 없이 살아요”

光熙

- 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도쿄지사장, 이사
- 전 KOC 남북체육교류 대책위원
- 현 동아일보 사우모임 동우회 회장

글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사진 · 박문두 회우 (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서 압사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31명 사망, 41명 중경상.

대 동아일보는 그 사건을 취재하지 못했다. 속된 말로 물을 먹었다. 이것은 언론계에선 그 사건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다. 다음해인 1960년 4·19가 일어났고 서울신문은 데모대가 지른 불로 사옥이 불타고 기능이 마비됐다. 이때 폐간됐다가 복간된 경향신문의 스카우트에 응해서 사회부 스포츠 담당기자로 자리를 옮겼다. 일 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취재하는 등 많은 보람을 누렸다.

해외 취재뿐만 아니라 태평양 횡단 요트대회, 조오련 선수의 대한해협 횡단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도 자랑스러운 일들이었다.

1977년엔가 연말에 회사에서 남시욱 기자가 동아 대상과 부상 100만원을 받게 돼 내심으로 섭섭했는데 김상만 사장이 별도로 부르더니 자네도 대상감이라며 격려금 110만원을 건네주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 지금도 동우회보 칼럼집필

처음 서울신문에서 ‘임 견습기자 명 휴직’ 후 사령장을 받은 날 김영진 주필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지”라고 했다. 입사시험 논술 문제가 “한·일 관계를 논하라”였는데 김 회우의 답안지가 뛰어났음을 비친 말이었다고 했다. 김 주필은 논설위원회에서 김 회우의 답안을 거론하면서 “이 정도면 당장 사설로 취급해도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답답하다는 김회우의 다이어리.

# 사회면 톱...교과서에 논설문 실려 체육부 창설...해외 취재 큰 보람

반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그 당시로는 일등 신문이었던 동아일보로 옮겼다. 사회부 기자로 문교부를 출입하며 보람을 누리고 있었는데 최초 편집부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1961년 이었다.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데 준비해야겠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정도 스카우트해서 체육부를 만들라는 지시였다. 대 동아일보의 체육부장 대우가 된 것이었다.

동아 체육부에서 일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해외 취재를 많이 한 것이었고 북한의 신금단, 한필화 선수를 둘러싼 특종 공방도 기억에 남는 취재였다.

1963년 도쿄의 프레 올림픽을 취재했으며 1979년에는 국내 기자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 노진호 기자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해 AIPS(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를 취재했고 다음해인 1980년에는

김 회우의 문장력은 사건 스케치에서도 뛰어났다. 서울역 압사 사건 때 김 회우는 스케치를 맡았는데 사회면 톱이었다.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역 그 마의 계단 위엔 무심한 눈이 내려 쌓이고 있었다.’ 이 대목을 들어 편집국장은 “자네 배짱 한 번 좋구먼.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詩 같은 글이 나오다니...”라며 칭찬을 했다고 했다.

1972년 동아일보 광고사태가 벌어지자 지면을 채울 기사가 모자랐다. 김 회우는 본격적으로 지면을 채우기 위한 칼럼을 썼다. 김 회우의 칼럼은 인정을 받았고 필력은 더욱 다듬어 졌다.

1985년 문교부 장학관이 찾아왔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게재할 논설문을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지금도 김 회우는 계속 시론을 쓴다. 東友會報에는 ‘世情낙수’란 고정 칼럼을 쓰고 있다.

##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⑨

### 콜레스테롤 바로알자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cholesterol) 수치에 민감하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low density lipoprotein) 수치가 높으면 큰일 난 것 같이 생각한다.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이해가 과장되었다는 보고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은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진 대규모 임상실험연구에서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까지의 통념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난 해 말 보도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2008년에 이루어진 임상실험연구에서 LDL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도 심장병 발생위험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봄 두 번째 발표한 임상실험에서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high density lipoprotein)을 증가시킨다 해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발생위험이 낮아지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다. 당시 미국에서 심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장병 환자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찾던 중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그 후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지금까지와 다른 이 같은 연구결과는 콜레스테롤 치료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콜레스테롤은 혈류를 따라 순환하며 간과 몇몇 기관에서 합성된다. 간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 양은 보상 메커니즘으로 조절된다. 즉, 식사를 통해 섭취한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통해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해도 간에서 조절함으로써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는다는 악평이 있지만 우리 몸 여기 저기 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구성분이자 성호르몬 생성 등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기도하다. [출처]

글쓰기 이야기를 하면서 김 회우는 70년대 초 도쿄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만난 교수가 “글은 함부로 기분대로 쓰면 안 된다. 글을 쓰려면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한 말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 집에 초청 받았는데 주제별로 정리된 신문 스크랩만 60권 정도 되는 것에 놀랐다. 김 회우 자신도 30~40권 정도의 신문 스크랩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노조관리 가장 힘들었다”

서울신문 견습 기자 시절 사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네 살 아래의 장복남 여사를 만났고 수수하고 착한 마음에 끌려 결혼했다.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은 폴란드 삼성전자의 부법인장으로 손녀와 손자를, 의사인 딸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손자 둘을 두고 있다.

부인 장복남 여사는 2009년 점심을 같이하다가 심장 쇼크로 갑자기 별세했다. 충격이 컸고 아직도 남아 있다. 김 회우는 1985년부터 3년 동안 도쿄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인과 일본 각지를 여행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김 회우의 눈시울이 떨리는 듯해서 얼른 화제를 바꾸어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라고. 도쿄지사장을 끝내고 공무국장을 맡았는데 노조문제로 골치가 아팠다. 이때가 가장 힘든 세월이었다. 문선 파트 직원 70여명과 맞짱 뜨기 회합을 했는데 일대일로 한잔씩 주고받았다. 소주 70잔을 마시고도 건디었던 일에 자신도 놀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 분위기를 달라지게 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후배기자들에 대해서는 사명감 보다는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 같아 아쉽고 문제의식도, 물고 늘어지는 끈기도 약해진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스스로 “나는 독거노인”이라는 김 회우는 활기찬 모습이었고 당당했다. 그리고 공부하고 글 쓰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어보였다. 그리고 자녀관계에 대한 소신도 확신했다.

“자녀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용돈의 대부분을 주택연금으로 해결하는 김 회우는 노년에 자녀 사업을 돕다가 고통을 받는 ‘자녀 리스크 관리 비법’도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출처]

# 피카소 여성편력의 거리를 가다

## 여성의 육체는 창작의 源泉?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1881~1973)가 천하의 바람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그의 일대기에 드러난 여인만 일곱 명이다. 페르낭드 올리비에, 에바 굴, 발레리나 올라 코클로바, 마리 테레즈 발테르, 사진작가 도라 마르, 법학도 프랑수아즈 질로, 도자기 공장 점원 자클린 로크 등은 결혼을 했거나 동거한 사이다. 시인 엘뤼아르의 부인 뉘슈 엘뤼아르 등 동거하지 않은 연인들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가운데 두 여자는 피카소를 잊지 못해 자살했고, 두 여자는 지나친 질투와 강박관념으로 정신이상이 됐다. 바람둥이 남편을 유일하게 견어찬 여인은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의 프랑수아즈 질로였다.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나자 피카소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으나 그녀는 단호하게 뒤돌아보지 않았다.

피카소가 46세 중년 때 작업을 핑계로 유혹한 마리 테레즈 발테르는 미성년자. 앓던 그녀에게古城을 사주고 밀회를 즐긴 것은 부인 올라조차 몰랐다. 명작 ‘꿈’의 주인공이 마리 테레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였고, ‘꿈’을 계기로 초현실주의로 창작의 지평을 넓혔다.

벌거벗은 매춘부들의 몸을 기하학적으로 해부한 ‘아비뇽의 처녀들’은 입체와 그림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비뇽’은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매춘부들의 집단 거주지로 과거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텍사스’ 같은 곳이다. 매춘부는 물론 미성년자, 귀부인을 가리지 않고 애정행각을 펼친 피카소의 여성편력은 예술로 승화시켜 무죄인가? 그에게 여성의 육체는 창작이 샘솟는 源泉이었던 것 같다. 샘솟듯 솟구친 정력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 “투우 거시기가 왜 이리 작아?”

‘노인과 바다’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가 18년 연배인 피카소를 만나 물었다.

“당신의 여성편력은 화려하다. 샘솟듯 솟구치는 정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투우의 고장에서 태어나 투우의 거시기를 많이 먹은 탓이오” 피카소는 결결 웃으며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헤밍웨이는 투우 거시기를 판다는 식당에 예약을 한 뒤 잔뜩 기대하고 들렀다. 웨이터가 쟁반에 받쳐 가져온 거시기가 형편 없이 작았다.

“이보게 웨이터, 투우 거시기가 왜 이렇게 작은가?”

“오늘은 투우가 죽지 않고 투우사가 죽었습니다” 웨이터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글·사진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스페인 남부 론다의 상징인 높이 98m의 누에보 다리.



스페인 최초의 투우경기장 내부. 지금은 투우박물관으로 활용한다.



바로크 양식의 론다 투우장 앞에 세워 놓은 투우 동상.



피카소가 태어난 말라가 지중해 해변마을.

스페인 여행 때 가이드에게 들은 우스개지만 투우의 거시기는 ‘남자들에게 참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들이 보신탕집에서 단골에게만 준다는 ‘만년필’처럼, 경기장에서 장렬하게 죽은 투우는 곧바로 가공

처리되며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특히 투우의 거시기는 가장 비싸다는 것.

헤밍웨이의 여성편력도 만만찮아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을 했다. 미국 시카고 출생인 그는 에스파냐 내전 때 특파원으로 취재한 적이 있다. 스페인의 풍광에 반해 론다에 머물며 투우를 다룬 소설 ‘오후의 죽음’(1932년)을 집필했다.

파블로 피카소의 고향은 스페인 남부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 말라가. 그가 두 살 때까지 살았던 생가는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성장하면서 바르셀로나와 바그다드를 거쳐 파리에 정착했다. 투우를 즐긴 피카소는 론다를 자주 찾았기에 두 사람의 조우는 가능했다.

## “투우와 육우, 어떤 소가 더 불행?”

론다는 말라가에서 버스로 세 시간 거리다. 론다의 상징은 누에보 다리. 42년에 걸친 난공사 끝에 완공된 높이 98m의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는 타호 협곡은 오금이 저리도록 아찔하다. 협곡 너머로 펼쳐진 너른 들판의 목가적 풍광은 눈길을 시원하게 해준다. 다리를 경계로 옛날 아랍인이 살던 구시가지 라 시우다드와 투우장이 있는 신시가지 엘 메르카디 두 구역으로 나뉜다. 누에보 다리 부근 언덕 위의 하얀 집들은 요정의 집처럼 아름답다. 누에보 다리는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도 등장하고, 그가 머물던 숙소는 5성급 호텔로 바뀌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근대 투우의 창설자 프란시스코 로메로가 태어난 곳도 론다. 본래 스페인 투우사들은 말을 타고 소와 대결을 벌였다. 로메로가 ‘무레타’라 불리는 빨간 망토와 칼만 들고 소에게 도전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 투우는 지금 같은 형태로 변화했다.

어느 도시에도 같은 이름인 스페인광장엔 검은 투우 동상이 달려들 듯이 앞발을 들고 서있다. 그 옆 바로크 양식의 론다 투우장은 1785년에 지은 스페인 최초의 투우장이었으나 지금은 투우박물관으로 활용한다. 회랑에는 투우사들이 입었던 의상과 투우 포스터와 사진 등을 전시해 놓았다.

스페인의 관광코드였던 투우는 야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며 동물 학대라는 반대여론에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카탈루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투우사들은 “투우는 4살까지 푸른 초원에서 체력을 단련하며 호강하다가 경기장에서 죽고, 육우는 우리에게 갇혀 살만 찌우다 1년 만에 도살되는데 과연 어느 소가 더 불행한가”라고 반문하며 투우 폐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투우사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다. [국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http://www.kyobobook.co.kr)에스24) [www.yes24.co.kr](http://www.yes24.co.kr)인터파크 도서) [book.interpark.com](http://book.interpark.com)

절찬리  
판매중

한국에 대해 이렇게 진심어린 사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인 일본인은 없었다

#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대은(文化大恩)’의 나라 ‘형님의 나라’ ‘스승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 대은을 짓밟고 귀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귀국에 속죄할 것입니다.  
최대의 예(禮)를 다하여 영원히 귀국과 우정을 맺고 귀국의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결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로소 일본이 올바르게 번영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중에서

## 이케다 다이사쿠의 한국예찬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연설과 대담록, 한국에 관해 쓴 에세이와 시,  
그리고 한글, 고려청자, 한복 등 한국미(韓國美)에 대한 예찬을 담은 글 등을 엮은 책이다.  
또한 이 책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밝히는 등, 올바른 역사관을 조명하고 있다.

저자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 출판사 조천뉴스프레스 | 면수 216면 | 판형 120×190(양장본) | 발행일 2012년 7월 31일 | 가격 12,000원 | ISBN 978-89-91491-80-9 03040



조천뉴스프레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번지 02-724-6847(판매), 02-724-6830(편집)

# 소쇄원-가사문학관...가을정취 만끽

## 본회 문화탐방 담양일대 답사

대한언론인회 회원 80여명은 지난 10월 24일 가을철 문화탐방지로 전남 담양을 다녀왔다. 이날 느낀 소회를 생각하는 대로 옮겨본다.

예정된 시간 11시 경 우리는 어김없이 담양 소쇄원(瀟灑園) 입구에 도착했다. 문화해설사 오영순여사(전남 모대학 교수 출신)의 반기는 모습이 유난히 정겹다. 유창한 영어를 섞어가며 탐방객을 제압하는 해설 솜씨 또한 남다르다. 일단 한시를 외우며 ‘물 맑을 소(瀟) 깨끗할 쇠(灑)’하며 따라 하란다. 이렇게 시작된 해설은 그야말로 박학다식(博學多識).

소쇄원은 조선중기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은사인 정암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능주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출세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숨어 살기위해 꾸민 대표적인 민간 별서정원으로. 호남 사림문화를 이끈 인물들의 교류처 역할을 한 곳이다.. 특히 면앙 송순,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사촌 김윤제, 제봉 고경명, 송강 정철 등이 드나들면서 정치, 학문, 사상 등을 논했다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앞을 보니 흙 담에 소쇄처사양공지려(瀟灑處士梁公之慮)란 글씨가 보이고 그 넘어 정자엔 제월당(霽月堂)세 글자가 완연하다. ‘비개인 하늘에 상쾌한 달’이라는 뜻의 제월당은 주인이 거처하면서 학문에 몰두하는 공간이었음을 알만하다. 서둘러 전라도 떡갈비 정식 집에서 대통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온 천지가 내 세상 같다.

오후에 들른 가사문학관, 여기서 우리 회우들은 정말 경천동지할 만큼 유머스런 명 강의에 넋을 잃을 뻔 했다. 적당히 영상물이나 보여 주려니 했던 예감은 180도 빗나갔다. 이래서 매사에 예단은 금물이라 했던가. 모두들 같은 느낌이었는지 여기저기서 탄성과 박수 만발이다.

암기력도 보통이 아니다. 송순의 면앙정가와 정철의 관동별곡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두 보 이백 소동파의 시도 달달 외운지 오래라니 참으로 대단한 기억력이다. 어디 그 뿐인가. 아리랑, 킬리리아를 연창하며 선보인 유연한 춤 솜씨, ‘강남 스타일’도 압권이고 팔도방언 소월의 시, 오탁번 시인의 ‘폭설’, 방랑시인 김삿갓의 해학 시에다 가사를 바꿔 부른 ‘언니는 좋겠네’는 정말로 배꼽을 빼게 한다. 전국의 문화유적지를 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고전 현대 할 것 없이 시문학에 밝고 입담 좋은 문화해설사를 만나본 것은 처음이다. 담양의 자랑이면서 관광한국이 내세울만한 문화해설사라면 과찬일까.

여기서 잠깐 머리도 식힐 겸 들은 대로 소월의 시 ‘진달래 꽃’을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옮겨 본다.



담양문화탐방에 나선 회우들이 가사문학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소쇄원 제월당 뜨락에 선 대한언론인회 회우들.



대나무 바람이 시원한 죽녹원.

‘이제는 지가 역겨운 감유/ 가신다면 유 어서 가서유/ 임자한테 드릴 건 없 구유/ 앞산의 벌건 진달래 꽃/ 몽테기로 따다가 가시는 길에 깔아 드리지유/ 가시는 걸음 옮길 때마다/ 저는 잊으

유/ 미워하지는 마시구유/ 가슴 아프다가 말것쥬 어찌것시유/ 그렇게도 지가 보기가 사납던가유/ 섭섭해도 어찌것시유/ 지는 관참어유/ 울지 않것시유/ 참말로 잘가유/ 지 가슴 무너지졌지만/

어떡허것시유/ 잘 먹고 잘 살아바유’

마지막 들른 죽녹원. 여기를 찾지 않고 담양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근 도로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버스가 즐비하다. 2003년 5월에 조성하여 약 16만㎡의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장관을 이룬다.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철학자의 길’ 등 8가지 주제의 길 2.2km의 산책로는 삼림욕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가사문학관 주변엔 소쇄원 이외에도 식영정, 송강정, 환벽당, 면앙정 등 당대의 명제상이요 문장가가 교류하며 시를 짓고 시국을 담론하던 정자가 여럿 있어 찾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시간관계로 다 둘러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루 종일 죽(竹)여주는 담양에서 외친 ‘통통통’(운수대통, 만사형통, 의사소통의 준말) 간배사와 눈에 삼삼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이정옥 문화해설사의 낭랑한 목소리가 자꾸만 귓전을 맴돈다. ☞

글·정운중 상임이사, 사진·이남규 회우

VISION 2020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고객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나아가 세상이 더 크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을 수 있도록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SK텔레콤 구성원 한명 한명의 의지와 신념을 담아낸 새로운 비전입니다

가능성의 릴레이

바다 속 세상이 궁금한 아이에게  
깊은 바다 속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 신기한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술은 아직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물고기 정보



가시복

- 학명: 가시복 / 학과: 가시복목
- 서식지: 연안
- 분포지역: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남해안
- 분포지역: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온대 및 열대해역

서식지



주요서식지



물고기 정보

플랩노즈레이

플랩노즈레이는 플랩노즈레이과에 속하는 물고기이다. 몸길이는 약 10cm 정도이다. 몸은 납색을 띠고 있다. 주로 연안에서 서식하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사람에서 기술로 다시 사람으로



www.sktcampaign.com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만나보세요

## 언론가 소식

## 한국방송협회 우원길 회장 선출



우원길 SBS 사장은 지난 8월 22일 열린 한국방송협회 2012 정기총회에서 제18대 방송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대한민국 NIE 대회' 개최

2012 대한민국 NIE대회가 10월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NIE 대회는 '신문은 생각을 키우는 나무입니다'를 주제로 기념식에 이어 '신문사랑 전국 NIE 공모전'과 '신문 읽기와 인성 함양 패스포트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 프레스클럽 회원 문화탐방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회원 100여명은 지난 10월 26일 멀리 전남 정읍 내장산 내장사와 백암산 백양사를 다녀왔다. 내장산에선 케이블카를 타며 붉게 물든 내장산 계곡을 내려다 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문화탐방엔 대한언론인회가 출판중인 '언론·언론인의 길-못다 한 이야기' (제2집) 필진들이 동참했다.

## 한국언론학회 회장선임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택 성균관대 교수(사진위)를 제3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성균관대 출신인 신임 김정택 학회장은 중앙일보·동양방송 기자로 재직했으며 미국

미주리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내년 10월부터 1년간 임기인 제 40대 한국언론학회장으로 김동규 건국대(신문방송학)교수(사진아래)를 선출했다.

서강대 출신인 김 교수는 한국언론학회의 미디어경제경영연구회장과 감사, 한국방송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세계일보 회장에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 선임

세계일보 회장에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이 선임 됐다. 고 문선명 전 통일그룹 총재의 4남인 문 회장은 현재 통일교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 오도광 전 한국일보논설위원 별세

언론인 오도광씨가 지난 10월 15일 별세했다. 1958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오씨는 95년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퇴직하기까지 일간스포츠 체육부장 등을 맡으면서 '오도광스포츠칼럼', '하오칼럼' 등 스포츠 칼럼의 모범을 구축했다.

95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개입을 경계한 '정치인이 왜 나서는가' 등 스포츠 현상을 정치·문화·사회적 문제와 관련시킨 그의 글쓰기는 스포츠에 대한 일반의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정부간행물제작소 전문위원, 대한올림픽조직위(KOC)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고문 등을 역임한 고인은 96년 서울시 문화상 언론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일보 2012년 10월 16일자 기사 전재)

## 황순중 원로회우 별세

황순중 원로 회우가 지난 10월 3일 별세 했다. 향년 81세. 고 황순중 회우는 1931년 7월 30일 평양에서 출생, 평양고를 졸업했다.

미 극동항공학교 수료, 경희대 정치외교학과(3년) 중퇴



후 중앙일보 기자(53년)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자유신문 사회부 기자, 세계일보기자(56년), 현대경제신문 기자, 월간 진상 취재부장, 도서출판 진상사 대표를 역임했다. [4]

## 김재영 원로회우 별세

김재영 원로 회우가 지난 10월 20일 부산 행복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장례는 10월 22일 오전 부산 침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 김재영 원로회우는 1930년 5월 21일생으로 1957년 광주신보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 광주신보 사회부장, 전



남매일신문 사회부장, 전남일보 사회부장,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지방부차장, 전남일보 편집부국장, 한국경제 신문 사업부국장등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와도 인연이 깊어 한때 대한언론인회보 제작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이사, 자문위원 겸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4]

## 弔辭

## 고 김재영 형 영전에

이구열(미술평론가·전 서울신문 문화부장)

김재영 선생. 우리 지난날의 막역한 친분으로 김 형이라 부르겠소.

아니 형의 부음이라니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애통함을 어찌 삭일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은 80 노령자 중에서 가장 단단한 체력에 등산과 산행의 명수여서 누구보다도 장수하실 걸로 모두 믿었던 형이 아닙니까.

지난 여름께만 해도 해남 귀향지에서 외롭긴 하지만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가끔 전화통화로 들으며 언제 서울에 올 것이냐고 정답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데 그 사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부산의 아들집으로 가서 병원에 다니며 병세를 다스리고 있던 말을 이종윤 형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비통한 기별을 금세 듣게 될 줄이야 어찌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듣자니 김 형이 결국 장암 수술을 받았고 그 병고가 매우 깊은 듯하다는 근황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는 했으나 우리의 발전된 의학이 형의 그런 병고를 능히 쾌유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끝내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니 인간 생사의 허망함이 새삼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나와 이종윤 형은 김 형과 더불어 주말과 휴일에 북한산 산행을 약15년이나 같이한 바 있었죠. 그때 형이 보여준 강인한 체력과 전국의 명산을 모두 등반한 풍부한 등산 체험의 산악인으로서의 헌신적인 리더십, 그리고 깨끗한 언행의 매너는 동행자 누구나 칭송한 인품이었습니다. 그런 전문적 산행인이던 김형은 대한언론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언론계 선후배 동료들과 건강 및 친목의 모임으로 2003년에 새롭게 결성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를 앞장 서 이끌며 여러 해 회장을 맡았었죠. 그런 활동은 형의 본성적 적극성이자 회생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형은 남다른 친화력의 소유자로서 언론인회 4, 5백명 회원 동료들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놀라운 기억력을 나타내 우리를 감탄케 했습니다. 그런 활동성으로 언론인회의 이사를 수차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형의 그 모든 활동은 신문기자 출신으로서의 금지와 바른 정신 및 건전한 사회의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형은 놀라운 속필의 문필인으로 많은 글도 쓰셨고 대한언론인회보(현 대한언론) 지면의 유력한 필자이기도 했습니다. 형의 속도감과 순발력 있는 문장은 쉽고 부드러우면서도 내용에 충실성이 충만했습니다.

김 형은 일찍이 상처한 처지였음에도 그 망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일념으로 재혼 따위를 일절 염두에 두지 않은 도덕적 고결함을 보이기도 했죠.

언젠가 산행 길에 들려주기를 서울에서 머지않은 공원묘지에 외로이 묻혀 있는 망처를 당신이 저 세상 갈 때 고향의 가족묘역에 자신이 조성해 놓은 곳으로 같이 가 합장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리된다면 참으로 애뜻한 부부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나는 형의 상사(喪事)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먼 거리 부산의 상청에 문상을 못간 것입니다. 소생도 노령에 무릎관절을 앓느라 보행이 여의치 않은 핑계를 댈지만 서울에 앉아서나마 형의 명복을 빌고 또 빕니다. 기회가 되면 형의 해남 향리 산소에 한번이라도 찾아가 술 한잔 올리리다. 광주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광주신보, 전남매일신문, 전남일보에서 사회부장을 지내다가 1963년에 서울신문 사회부로 스카우트되어 1970년 까지 지방부 차장을 역임하는 등 맹렬한 사회부 기자로 활약한 형의 언론계 업적은 향리에 전설이 될 걸로 믿습니다. 병고 없는 저승의 동산에서 오래도록 사별했던 부인과 다시 만나 오롯이 영혼의 정을 나누소서. 당신의 벗 이구열. [4]

※10월22일 장례시에는 집안사정으로 부인과 합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회우들이 펴 낸 新刊

## 김현 회우 '... 사제 오기선'

김현 회우(전 KBS방송연구실장)가 부인 조동현 여사와 함께 '한국 첫 재속프란치스칸 사제 오기선'을 펴냈다. 김 회우는 현재 재속프란치스코회 75주년 기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오기선 신부에게 세례와 혼배성사를 받고 가족 22명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책은 재속 프란치스코회 첫 사제 회원으로서 프란치스코 3회를 설립한 오기선 신부의 일대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3,000여명의 고아를 문제아 한명없이 길러낸 오기선 신부의 삶을 제1장 '순교자의 후손' 제2장 '재속 프란치스칸 사제로



살며' 제3장 '사제생활 반생' 제4장 '증거의 삶'으로 꾸몄다.

한국인 사제중 첫 형제 사제이며 운전면허1호, 심지어는 양복을 입은 사제1호(동경에 파견될때 위장하려고)인 오기선 신부는 프랑스인 서울 교구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동경의 교황사절에게 밀사로 파견되어 노기남 신부를 주교품에 올리게 한 공로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고 오기선신부의 장례미사에서 "고 오기선신부는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셨고 거목이요, 보배이셨습니다"라고 강조한 내용도 본문에 실려있다.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 출판부 간·값6,000원) [4]

자산관리 전문가의 은퇴준비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2-5966호(2012.10.11~2013.6.30)

# 노후 준비는 특정 국가, 특정 지역보다 세계 대표기업에!



##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랩

지금의 여유를 노후에도 누리시려면, 보다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컨슈머랩은 폭스바겐 • 스타벅스 • 구글 • 에스티로더 등  
이머징마켓의 소비증가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는 세계 대표기업들을 선별해 드립니다

※ 최소가입금액 : 5천만원, 양도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이상 22%분류과세

**고객상담전화 : 1577-9300** ■ 랩 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랩 어카운트 계약전에 투자대상, 운용내역,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랩 어카운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 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정치,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주식 랩 수수료 : 분기 0.7%(연2.8% 후취) ■ 비교 : 국내 위탁매매 수수료 없음, 단, 현지 매매 • 환전수수료 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세금 등은 고객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참조(securities.miraeasset.co.kr)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가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회우동정

가나다순

### 고등학교 교과서에 글 실려



고두현(전 서울신문 국장급 기자)회우= 겸인정 교과서 출판사인 금성출판사가 펴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재미있는 육상경기 이야기’ 가운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과 2위 하퍼(영국) 그리고 육상 멀리뛰기의 우승자 오랜스(미국)와 2위 룡(독일) 사이에 얹힌 페어플레이 등 기사 2쪽지가 간추려 실렸다. 저작권료는 글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동안 해마다 지불한다고.

### 국제세미나 패널리스트로



문명호(전 문화일보 논설주간)주필= 10월 26~2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알제리 등 유엔 해양표기 전문가, 학자들이 참석한 ‘독도·동해표기 국제세미나’에서 종합토론 패널리스트로 활동.

### 시카고한인회관장 감사패 받아



이용호(전 대전일보 논설위원)회우= 시카고 한인회관 도서관에 이순신 장군의 국보 제76호 난중일기(번역판) 외 다수의 귀중한 서적을 기증하여 지난 10월 10일 시카고 한인회관(회장 김사직)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이 회우는 최근 이용호 시집 ‘山木蓮’(동광문화사 간행·164쪽·값 12,000원)을 출판했다.

### ‘홍성현언론기금’ 저술지원 공모



이홍기(전 KBS 파리총국장)회우= 10월16일 홍성현언론기금이사장으로서 홍성현언론기금 저술지원자를 공모했다. 지원금은 취재, 조사, 연구분야의 독창성있는 주제로 각 500만원씩 지원한다.

### 한일 문화교류 기금상 수상

정구종(전 동아닷컴 대표·한일문화교



류위원회 위원장)회우= 9월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 호텔 에메랄드볼룸에서 제13회 한일문화교류 기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일문화교류기금이 학술 문화 분야의 교류를 통해 한일간의 우호 친선에 기여한 한국인에게 주는 상이다.

### 진주 문화예술관서 페스티벌



정창기(전 KBS 기획보도실장)편집위원= 10월 3일 경남 진주시 문화예술관과 남강 일원에서 코리아드라마어워즈를 비롯한 다채로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 사무실이전 ‘평화세계’ 창간



최귀조(지구촌언론포럼 회장)이사= 9월 1일 평화통일관련 홍보지 ‘평화세계’를 창간했다.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1-3 한국컴퓨터 별관2층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편집실 전화 02)701-9740

### 아시아 드라마 발전 위한 포럼 개최



최창봉(한국방송인회 이사장·사진위)명예회우·안평선(한국방송인 상임부회장·사진아래)이사= 지난 10월 5일 경남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국내방송인과 중국 일본의 TV드라마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드라마의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 형사범죄 공개특강개최



홍용수(NSI자산관리연구회 회장)회우= 10월 16일 법무법인 현명의 고정한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평소에 사회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기횡령, 배임, 계약서작성, 기획부동산사기사건 등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공개강좌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사우회 소식

### 회장단 이사 감사 합동회의

#### 경향신문

경향신문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11월 1일 오전 11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감사 이사 합동 회의를 열고 개정 회칙(안)과 회보 48호 제작 계획(안), 송년회 개최, 기타 사우회 발전에 관해 의견을 교환 했다.

### 12월 10일 송년회, 동우회보 28호 발간

#### 동아일보

동아일보사우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10월 20일자로 동우회보 제 28호를 발간했다.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발행된 이번 호엔 이해복 본회 고문의 전기 출판기

념회(11월 22일 오후 2시 30분·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 산클럽, 바둑, 서예, 사진반 등 동아리 모임의 활기찬 모습과 스마트폰 강좌 개설, 임원·집행부 단합대회 등 다양한 소식이 실려 있다. 동우회는 또한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2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2월 5일 송년회

####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김충한)는 12월 5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 한진빌딩 신사옥 26층 홀에서 2012년도 송년모임을 갖는다.

## 본회 기우회 연말 바둑모임 개최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연말 바둑대회를 11월26일(월) 오후2시 종로3가 바둑세계기원에서 갖는다. 이번 대회는 A조(13급)와 B조(4급이하)로 나눠 진행되

며 각조 3위까지 시상한다.

대회가 끝난후 망년회가 있을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비없음/연락처 김윤석:(010-2880-0674)

## ‘혈액 8%의 비밀’ 들어본다

11월17일(토)에 ‘건강포럼’

2012년의 마지막 ‘토요 건강포럼’이 17일(토) 열린다. 이번 토건강포럼에서는 ‘혈액 8%의 비밀’을 풀어본다.

21세기 들어 혈액이 건강의 키워드로 새삼 부각되고 있다. 어혈과 혈액 건강학 서적의 범람과 생식, 채식 바람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혈액이 온몸의 신진대사를 주관하니 어찌면 당연한 이야기일수 있다. 현대인들은 생명의 원천인 피가 탁해지고 있고 맑고 건강하게 온몸을 누벼야 할 피가 마치 사고로 막 막힌 도로처럼 변하고 있다.

왜 이렇게 피가 탁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맑고 건강한



임춘희소장

피를 가질 수 있을까?

강사는 건강가정지원생명존중협회 사무국장이며 임춘희자연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춘희 소장이다.

11월 17일 토요일 오후2시부터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앞 명동입구에 있 ‘이윤수 비뇨기과’ 홀(02-779-4400)에

서 열린다. 한편 지난달 6일 열린 ‘토요건강포럼’에서는 최근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포진’에 대해 이윤수 박사의 강의를 있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대해 긴급 진단하는 강연으로 대신했다. [주]

### ▶ 저서 보내주신 분 ◀

김준하 원로회우= 윤보선 회고록 ‘외로운 선택의 나날’(2012년 8월·해위 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 간행)  
이용호 회우= 이용호 시집 ‘山木蓮’(2012년·동광문화사 간행)  
이성준 회우=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 (2012년 7월26일발행)

### ▶ 결혼 ◀

김용술 회우= 10월 5일(금)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장남 결혼  
오건환 회우= 10월 14일(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컨벤션 디아망(구 마벨러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딸 결혼

### ▶ 부음 ◀

이창호 자격심사위원장 모친상= 10월 15일 18시30분 별세, 발인 17일 11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 ▶ 주소·전화번호 변경 ◀

박우정 회우= 서울 서초구양재동 11-74 현대세라하임아파트102-602 (우137-887)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 괄호안 납입연도)

|                 |                |
|-----------------|----------------|
| 고두현(12)         | 이준기(8,9,10,11) |
| 고수웅(12)         | 이창호(12)        |
| 김경철(10,11,12)   | 이태자(12)        |
| 김용구(9,10,11,12) | 이향숙(12,13)     |
| 김재영(10,11,12)   | 임홍빈(8,9,10,11) |
| 김정삼(12)         | 정성진(12)        |
| 노상국(12)         | 정진철(8,9,10,11) |
| 손기상(12, 13)     | 최원각(9,10,11)   |
| 이 형(8,9,10,11)  |                |
| 이시현(9,10,11)    |                |
| 이재원(14,15,16)   | <10월 26일 마감분>  |

###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해서 꼭 받고!  
낸 것보다 많이 받고!  
물가까지 보장받아 더 받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반자로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꼭 받고, 많이 받고, 더 받는 국민연금

차가 당신처럼 유니크해지면  
유니크한 라이프스타일은 시작된다

뒤끝 없이 심플한 i30처럼, 옛지 있게 여유로운 i40처럼,  
1+2도어의 언밸런스한 벨로스터처럼  
유니크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동차로 표현한 **PYL**  
이제 **PYL**과 함께 유니크한 카라이프를 즐기세요

i30  
+ i40  
+ Veloster  
= PYL



1+2도어의 언밸런스한 *Veloster*



뒤끝 없이 심플한 *i30*



옛지 있게 여유로운 *i40*

벨로스터, i30, i40로 즐기는 Premium Yunique Lifestyle



자동차 개별소비세 1.5% 인하! [기간: 2012년 9월 11일~12월 31일] \*5년 이상 노후차 보유고객 추가 할인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hyundai.com](http://www.hyundai.com)) 및 가까운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